



관경 16관변상도(158x244cm).



“탱화는 오늘 우리의 초상”

고려불화가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물론 철저한 전통적 기법위에서다.

불화가 김의식씨(46)가 작가 인생 30년을 결산하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특별 불화전(6월 30일까지)'에 가면 김 씨만의 독특한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전시에서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 색다른 느낌이 든다.

30년 작업 결산 의미 담아...30일까지

성보박물관 지하 전시실에 걸려 있는 40여점의 불화들은 대웅전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후불 탱화를 연상케 한다. 불화는 역시 사찰 주변에 머무를 때 더 제 맛이 난다는 증거다. 김의식씨가 화폭에 펼쳐내는 고려불화에는 그만의 세련된 기교가 잘 담겨져 있다. 특히 법의(法衣)의 장엄한 표현이라든가 화려한 금색(金色)과 섬세한 선묘(線描)에 고려불화적 중간색 진채(眞彩)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만 봐도 그만의 해석이 돋보인다. 여기에 편채(片채), 석채(石채), 수간(繡間), 호본(조개가 무늬)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김의식 불화의 또다른 특징이다.

“탱화를 단순한 불교미술로 한정해 종교적인 의미만 부여한다면 실망을 잃게 됩니다. 특히 불교미술 자체를 탱화로 단정짓

는 경우가 많은데, 탱화는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 미술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들이 탱화를 집에 걸어두어도 되나고 물으면 이는 우문(愚問)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고려 불화는 고려시대 당시 귀족들의 장식물로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탱화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오늘의 우리를 초상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에서 봉안하는 불화와 작가적 창조력을 가미해 그리는 불화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그가 사람이 아닌 갤러리에만 선보이는 불화를 그리는 것은 아니다. 서울 길상사, 전남 화순 불암사, 충남 공주 영평사 등 전국 20여 사찰에 그의 불화가 장엄돼 있다.

해인사서 특별불화전 여는 김의식 씨

금색 선묘와 진채(眞彩)의 세련된 조화
현대적 감각으로 대중적인 불화 재현
8월 중국, 11월 일본 전시회 참가 예정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은 일반인들도 불화를 사찰이 아닌 전시장에서 편안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전통적 기법에 바탕을 두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라아 탱화가 단순한 불교미술이 아닌

우리미술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수월관음도'다. 예를 들면 수월관음도 원본의 상호(얼굴)가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이라면, 김 씨의 수월관음도는 부드러운 여성적 느낌이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수월관음도 같은 작품은 사무실 등에 걸어놓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30여년전 계룡산의 '심우정사'에서 봤던 불화의 강렬한 감



열반도 부분(240x200cm).

동 때문에 붓을 들기 시작했지요. 다른 그림과 달리 불화는 일념으로 하지 않으면 완성은 엄두도 못합니다. 서울과 해인사 두 차례의 전시회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문인(文人)기를 채우기 위해 여행을 잠시 떠날 계획입니다.”

수월관음도 '영산회상도' 등 4작품 선보여

제 18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과 '제 13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 했던 김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월관음도', '삼세불회도', '열반도', '관경 16관변상도' 등 2m가 넘는 대작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로 158cm, 세로 244cm 크기의 '관경 16관변상도'. 전통불화의 안료인 석채와 은은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이 대표작은 현대적 미학을 고루 갖춘 고려불화의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황금색 바탕에 은은한 향기가 돋보이는 '영산회상도', 부처님의 열반을 사부대중은 물론 미물까지도 슬퍼하는 모습을 장엄하게 펼친 '열반도'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씨는 또 8월 12일부터 중국 위헤시 박물관에서 열리는 '한중 예술교류전'과 11월 25일 동경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동국미술인회 일본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055)934-0988

글·사진·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은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계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페인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힘죽리 406-28 ● 홈페이지 : www.sungjongsas.co.kr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문양들!”

